



주민교육교재용

주민 스스로 즐거워지는 농어촌 생활만족 이야기



들어가기

이제 농어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직 자연과 사람에게 의지했던 예전의 농업과는 달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도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고소득 작물 재배 등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금의 농어촌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농어촌의 활성화라는 것이 경제성의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만큼 농어촌의 경제 상황이 발전해 있음에도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모든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농어촌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행복한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용작물과 같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도시민과 소통하는 요즘 농어촌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꾸며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 빛나고 즐겁게 만들어 행복을 찾아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진정 잘 사는 농어촌의 올바른 모델을 찾고, 우리나라 모든 농어촌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목 차

색깔있는 마을 이해	10
------------	----

1장. 생활만족형 공동체 현장포럼 이해

11

1. 농어촌 현장포럼 전체 프로세스	12
2.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프레임	14
3.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	15
4. 생활만족형 색깔마을	16
5.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유형	19
6.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사례	20
7. 1~3단계 현장포럼과의 차이점	22
8.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운영	23

2장.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운영

25

1. 공동체 활동 방향 설정	26
2. 공동체 활동 콘텐츠 발굴	28
3. 공동체 활동 평가 및 선정	31
4. 실행계획서 작성	33
5.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후속관리	36

3장.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사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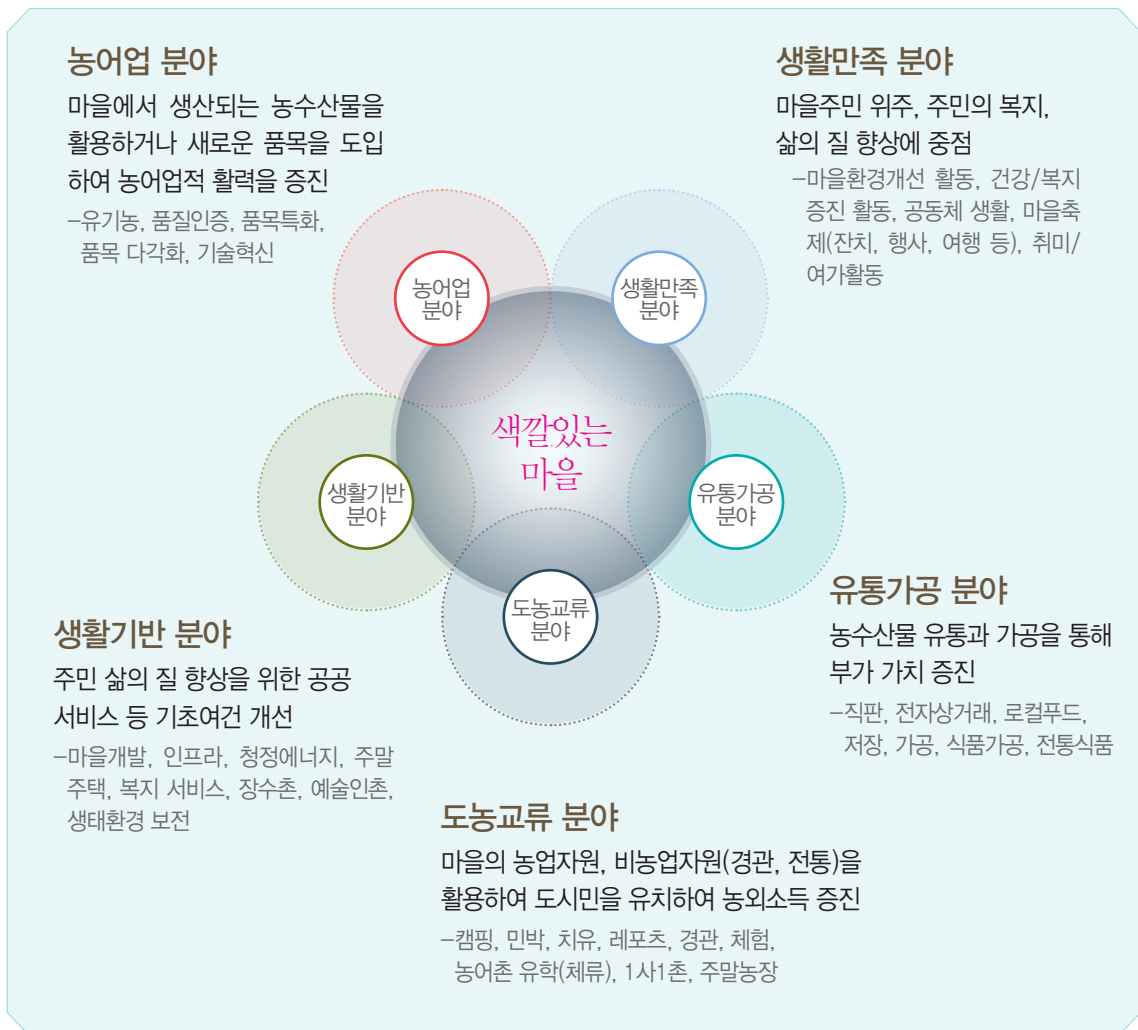
1. 마을환경 개선	1-1. 강원 영월 모운동 마을	42
	1-2. 충남 금산군 심천 마을	44
	1-3. 경북 영덕군 대진2리	46
2. 건강/복지증진	2-1. 경남 함양군 연서마을	50
	2-2. 경남 하동군 금성면	52
	2-3.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54
3. 공동체생활	3-1. 경기 화성시 산안마을	58
	3-2. 경남 산청군 민들레 공동체	60
	3-3. 경남 거제시 다대어촌자율공동체	62
4. 마을축제	4-1. 경기 화성시 산안마을	66
	4-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68
	4-3. 충북 괴산군 고성리	70
	4-4. 경남 거창군 개삼마을	72
	4-5. 전남 진안군 배넘실마을	74
	4-6. 전남 진도군 백구마을	76
5. 취미/여가생활	5-1. 경기 양주시 먹골마을	80
	5-2. 강원 평창군 대상리	82
	5-3. 경북 봉화군 청량산비나리마을	84
	5-4. 경남 함양군 봉덕마을	86
	5-5. 전북 완주군 비비정마을	88
	5-6. 전남 곡성군 도깨비마을	90
	5-7.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권역	92
6. 실패사례		94

색깔있는 마을 이해

○ 색깔있는 마을이란 무엇인가?

색깔있는 마을은 농어촌 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마을입니다. 즉,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증대하는 등 경제적 활력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수준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든 마을을 포함합니다.

마을의 색깔은 농어업 생산, 유통가공에서 도농교류, 농어촌 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마을 발전 요소를 포괄합니다.



○ 색깔있는 마을 조성 체계

색깔있는 마을 조성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합니다.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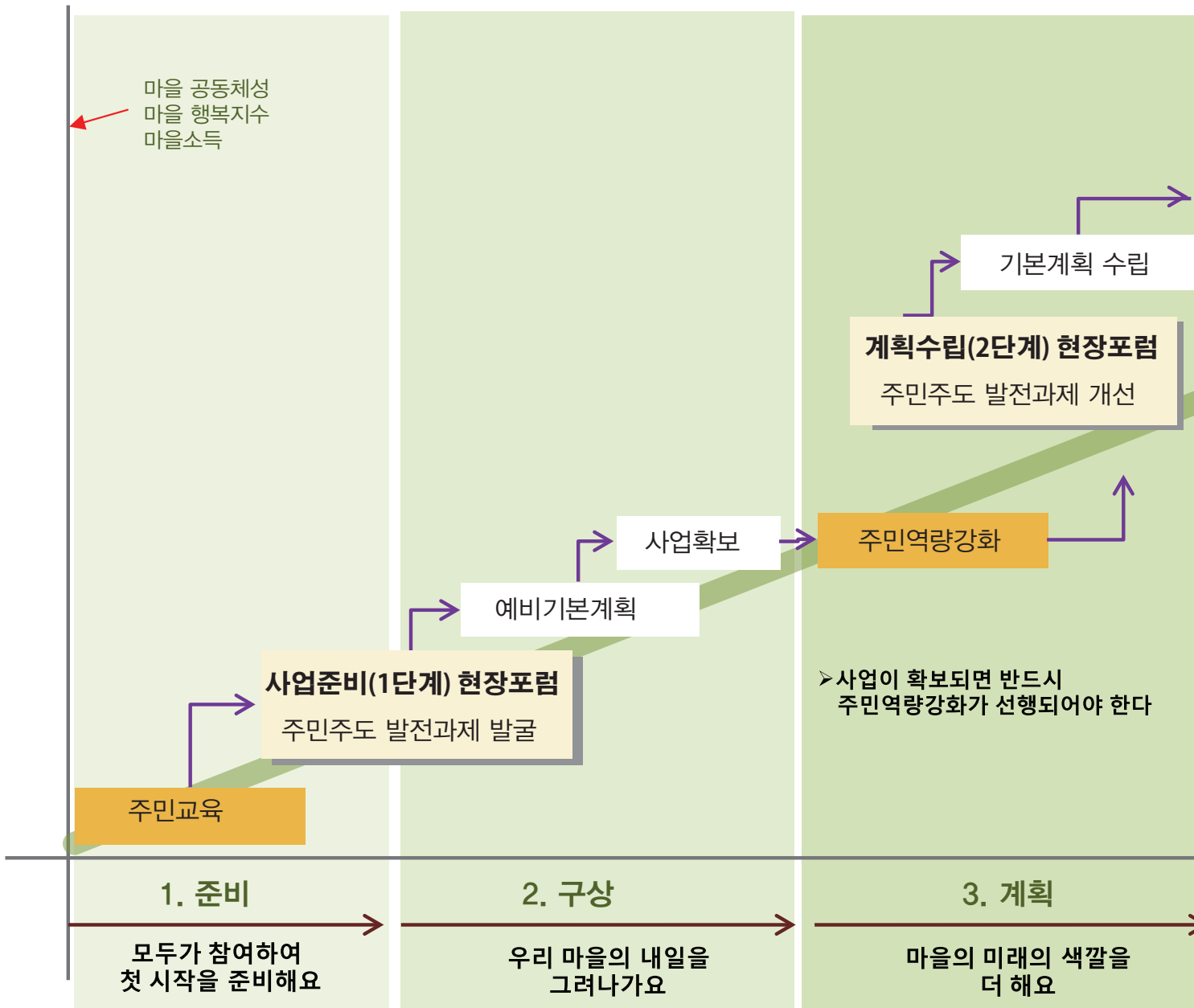
생활만족형 공동체 현장포럼 이해

1. 농어촌 현장포럼 전체 프로세스
2.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프레임
3.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
4. 생활만족형 색깔마을
5.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유형
6.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사례
7. 1~3단계 현장포럼과의 차이점
8.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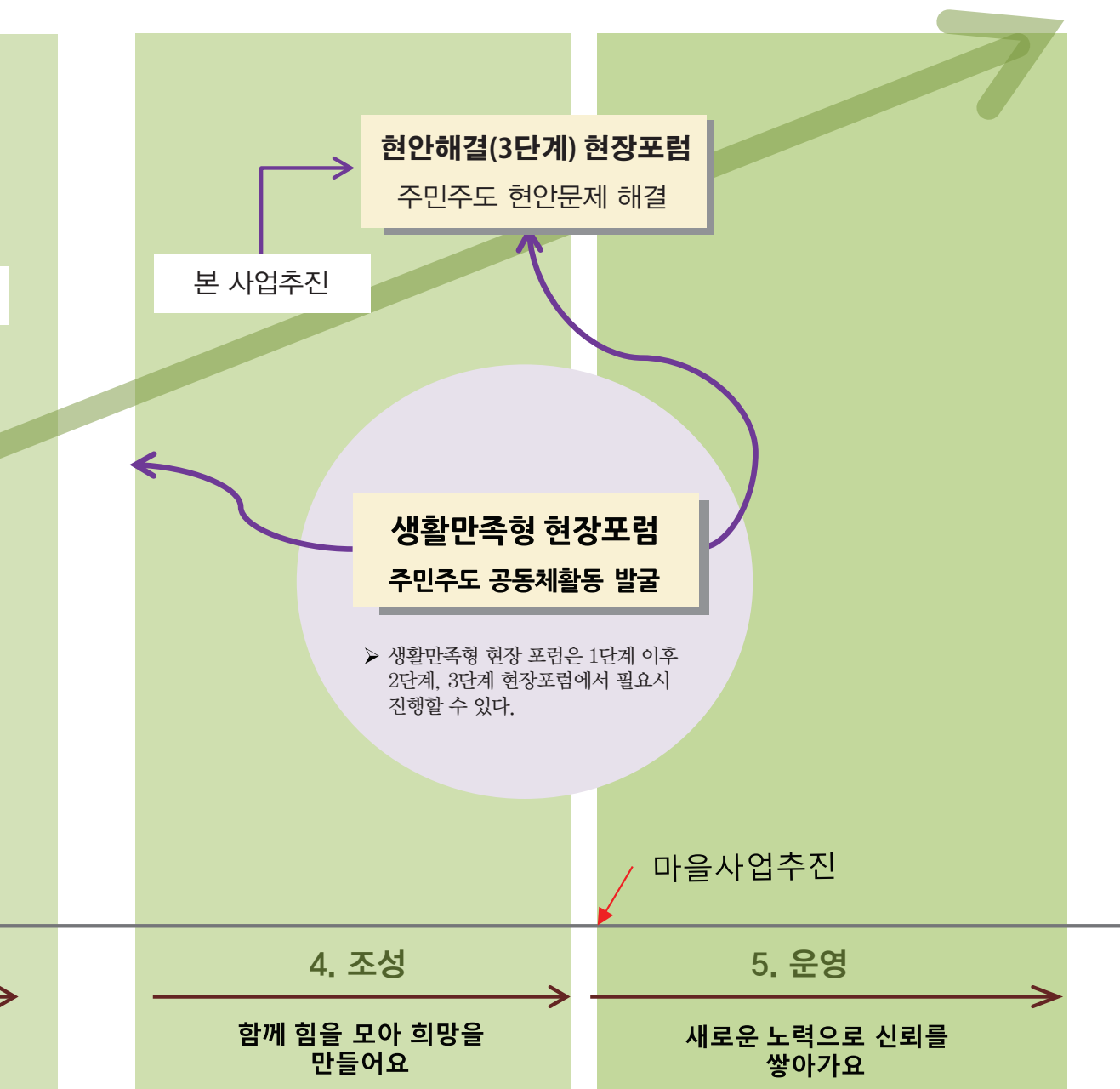
농어촌 현장포럼 전체 프로세스

- 색깔있는 마을과 농어촌 현장포럼

3단계 현장포럼 운영(CLP: Community Led-Planning)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1~3단계별 현장포럼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1단계 현장포럼 이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필요 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의 주요 목적은 주민주도의 공동체활동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프레임



현장활동가 역할

- 현장포럼 일정계획
- 전문퍼실리테이터 섭외 및 역할 수행
- 현장포럼 점검
- 준비 및 환경



마을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3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

○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공동체란 주거지 주변의 이웃들과 연대 의식을 갖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말합니다. 농어촌에는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있으며, 그 조직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혼상제 부조, 경로잔치, 계모임, 마을조직, 향우회, 작목반, 판매유통조직, 마을제례, 당제, 면민체육대회, 문화축제, 마을정비, 마을청소, 마을회보와 홍보물 등 농어촌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공동체 활동에 해당됩니다.

○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
- 마을가꾸기 사업 주체를 키우는 역할 담당
- 마을의 축제, 마을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생활만족형 색깔마을

○ 생활만족형 색깔마을이란 무엇인가요?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유형을 말합니다.

생활만족형 색깔마을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차고 행복한 커뮤니티 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프라지향, 경제지향 색깔마을과는 구분**됩니다.

생활만족형 색깔마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다른 유형의 색깔마을 사업과 구분됩니다.

- 소득향상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른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 내발적 요소에 의한 마을에 활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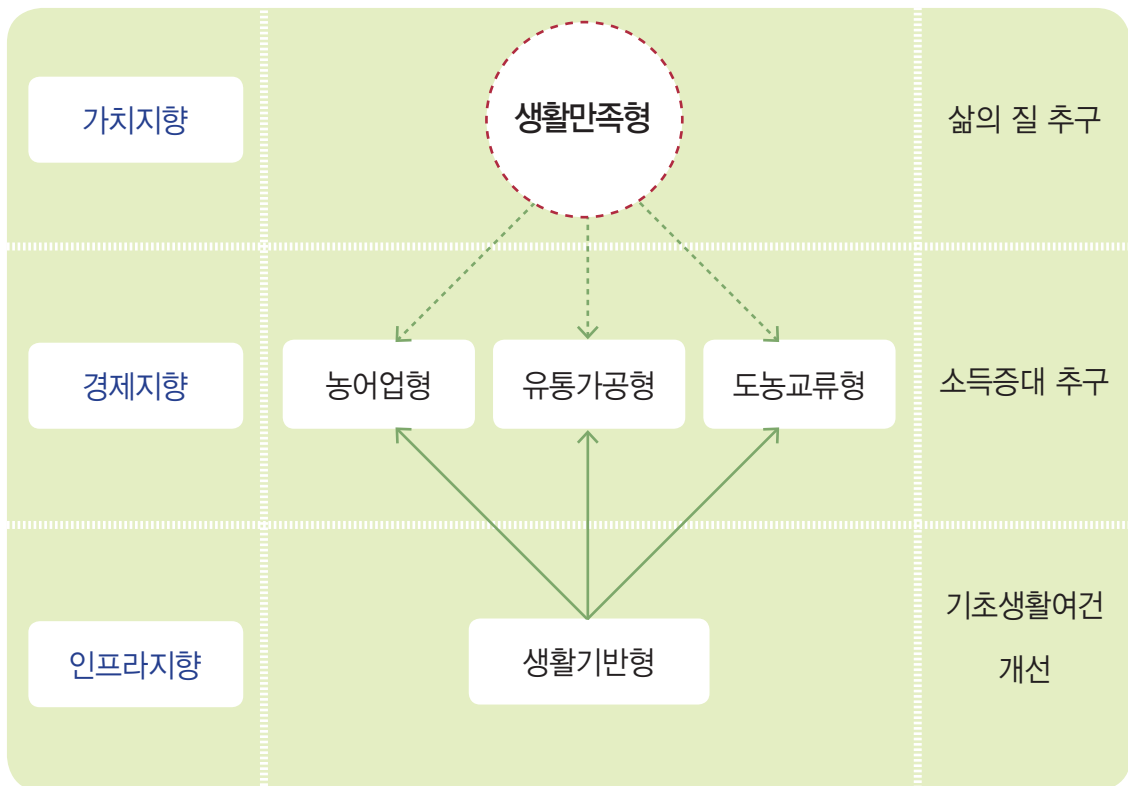


완도읍 장좌리 “장보고대사” 기리는 당제

○ 생활만족형 색깔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생활기반형, 농어업형, 유통가공형, 도농교류형이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유형이라면, 생활만족형 유형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색깔있는 마을



○ 생활만족형 색깔마을은 왜 필요한가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은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을 다지고 즐거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권역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촌 남중생활문화네트워크

5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유형

○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크게 마을환경개선, 건강·복지증진, 공동체생활, 마을축제, 취미·여가활동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 활동들이 있습니다.

생활만족형 유형

1. 마을환경개선 활동 분야



마을 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활동
- 마을청소, 꽃길조성, 벽화 등의 마을환경개선 활동

2. 건강/복지증진 활동 분야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체조, 운동 등의 건강프로그램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활동
- 노인체조, 생활체조, 걷기, 금연 등 건강증진 활동

3. 공동체 생활 분야



공동체의 정, 이웃사랑이 중심이 되는 마을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추구하는 활동
- 생활공동체, 생태공동체 등의 활동

4. 마을 축제 분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
- 마을 잔치, 여행, 계, 두레 등

5. 취미/여가 생활 분야



주민 여가 시간을 활용한 취미 활동
- 밴드, 풍물 등의 음악활동, 사진 찍기, 도예, 미술 활동 등

6

생활만족형 공동체활동 사례

○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목도모
진안 배넘실마을 여행

환경
영월 모운동 벽화

복지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복지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축제행사

진도 백구마을 마을잔치

교양, 학습

평창 대상리 미술활동

취미

봉화 청량산
비나리마을 도예

건강

함안 연서마을 금연

문화 예술

곡성 도깨비마을 인형극



1~3단계 현장포럼과의 차이점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과 1~3단계의 현장포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3단계의 현장포럼이 마을의 기초생활여건개선과 소득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1~3단계 현장포럼과의 차이점

구 분	1~3단계 현장포럼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소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 생활의 활력 · 삶의 질 향상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 테마발굴 · 마을발전 과제찾기 · 마을사업의 현안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 마을공동체 활동 과제발굴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예비, 기본)계획서 · 현안문제 해결 실천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활동 실행계획서

8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운영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생활만족형 공동체활동 현장포럼은 기존의 현장포럼과는 연속성 없는 별도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단계의 현장포럼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마무리 단계라도 1단계 이후에는 어느 단계에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마을 소득사업이나 생활기반관련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라도 마을 주민간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 시행 중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적용·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은 기존의 현장포럼이 3~4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1회의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활만족형 현장포럼만을 위한 별도의 역량조사나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 발굴 워크숍에서 생활만족형 공동체활동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을 포함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2장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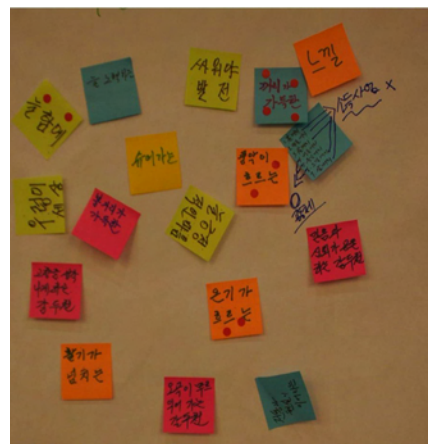
1. 공동체 활동 방향 설정
2. 공동체 활동 콘텐츠 발굴
3. 공동체 활동 평가 및 선정
4. 실행계획서 작성
5.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후속관리

공동체 활동 방향 설정

- 우선 공동체의 강점, 선호활동 등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동체 활동의 방향은 주민들의 선호활동을 위주로 정하게 되지만,
- 주민들의 재능, 관심사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브레인스토밍

- (1) 공동체활동을 발굴하기 전, 마을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방향에 맞는 활동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 (2) 자연마을, 리 등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6명으로 소그룹을 편성한다.
- (3) 전지와 여러가지 색깔 펜, 포스트잇 등을 준비하여 조별로 나눠준다.
- (4)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마을(권역)만의 공동체 활동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자신만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낸다. 이때 한 장에 한가지 생각만을 적어낸다.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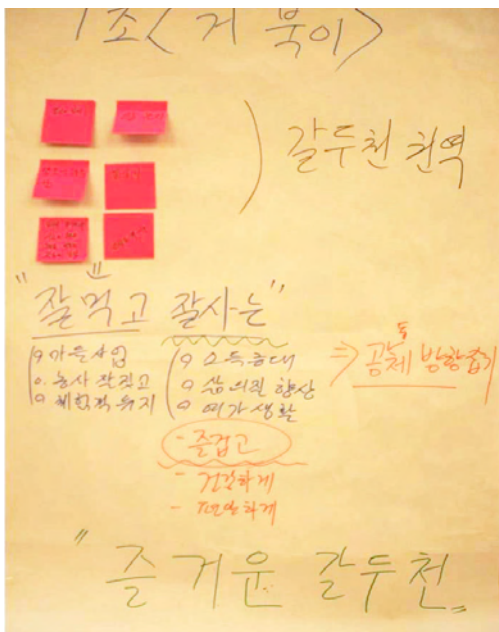
브레인스토밍으로 공동체 방향찾기

○ 활동방향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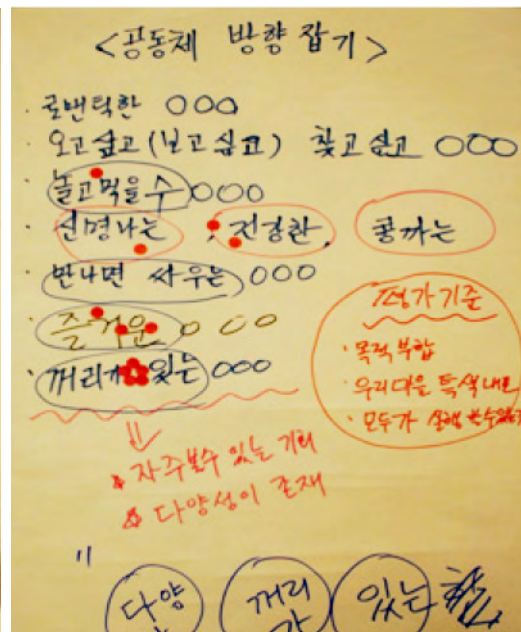
- (1)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낸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의 방향을 나타 낼 수 있는 문장을 만든다.
- (2)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선호도 투표를 통해 공동체 활동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의 활동 방향 찾기



 건강하고 즐거운 000권역



 다양한 꺼리가있는 000권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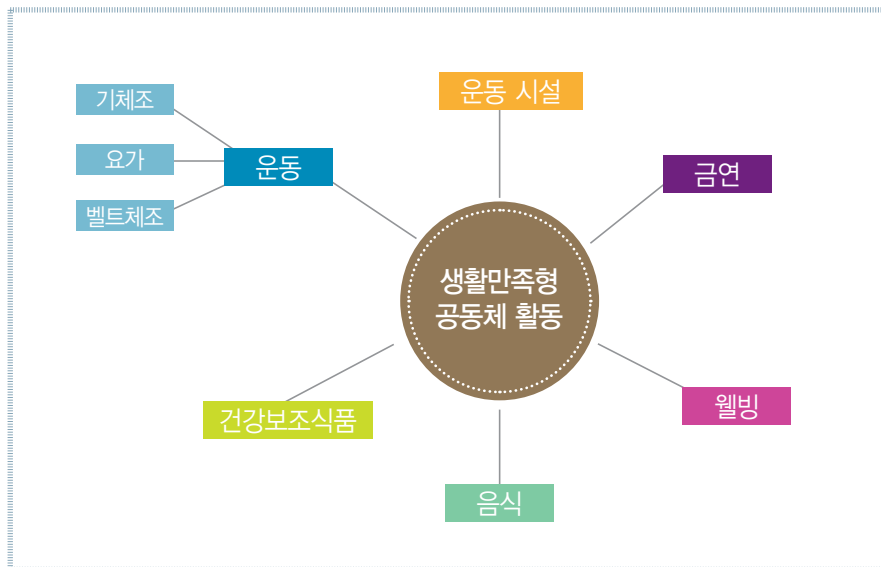
공동체 활동 콘텐츠 발굴

- 공동체 활동의 방향이 설정되면 공동체 활동의 콘텐츠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때 다양한 사례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여 콘텐츠를 쉽게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2-1. 콘텐츠 발굴 방법

○ 연상기법

- (1) 주민이 정한 공동체활동의 방향에 따라 콘텐츠를 찾아낸다.
- (2)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의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주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찾도록 한다.
- (3) 키워드는 복지, 문화예술, 교양학습, 건강, 친목도모,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발굴이 가능하다.
- (4) 전지를 나눠준 다음 가운데에 원을 그리고 6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연상되는 활동을 이음 선과 원으로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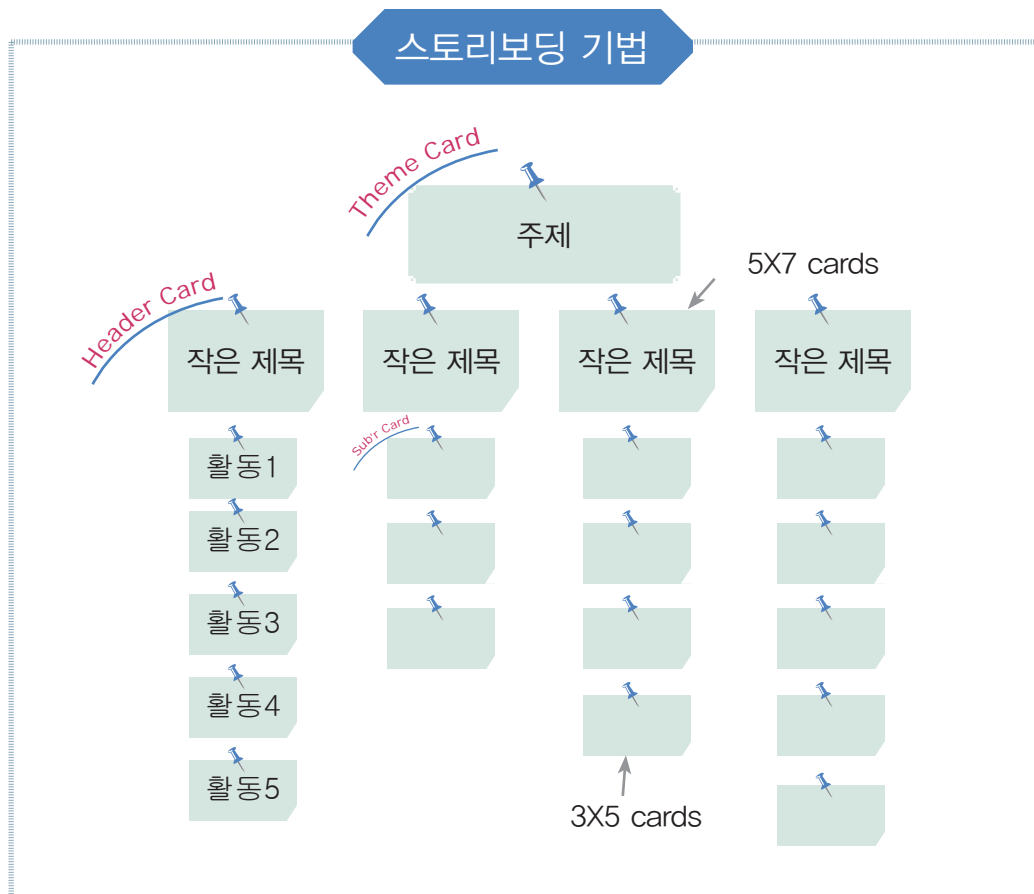


 연상기법을 활용한 공동체활동 찾기

2-2. 콘텐츠 정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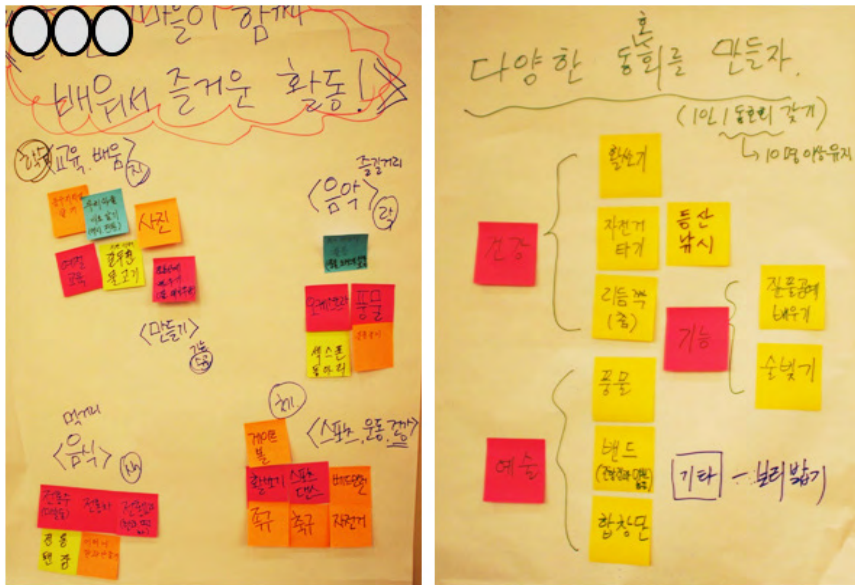
○ 스토리보드 기법

- (1) 각 조별로 발굴해낸 전체 콘텐츠를 취합해서 스토리보드기법을 활용해 정리한다. 스토리보드(Story Board)기법이란 도출된 아이디어를 모아 평가하는 것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한 방법이다.
- (2) 포스트잇에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적어 벽이나 패널에 붙인다.
- (3) 전체 아이디어를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 7개 이내의 그룹으로 아이디어를 분류한다.
- (4) 각각의 그룹으로 분류한 아이디어들의 공통되는 key word를 뽑아 그룹 별로 아이디어 제목을 적는다.





스토리보딩을 사용한 콘텐츠 축소



공동체 활동의 설정 방향에 따라 “배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콘텐츠를 발굴합니다.

2-3. 생활만족형 현장 포럼 진행 방법

◎ 생활만족형 현장포럼의 예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3:30~14:00	30	· 생활만족형 공동체활동의 이해와 사례	퍼실리테이터
14:00~16:00	120	· 공동체형성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주민참여토론) - 생활만족형 공동체활동 콘텐츠 발굴 - 콘텐츠(아이디어)의 평가 및 결정 - 공동체 활동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퍼실리테이터
16:00~18:00	120	·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 실행계획서 만들기	퍼실리테이터
18:00~18:30	30	· 워크숍 정리	퍼실리테이터

3

공동체 활동 평가 및 선정

- 공동체 활동의 콘텐츠는 주민들이 추구하는 공동체 활동의 방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콘텐츠는 다양하게 선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도트보팅 기법

- (1) 스토리보드기법으로 정리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우리마을(권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과제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평가전에 구성원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가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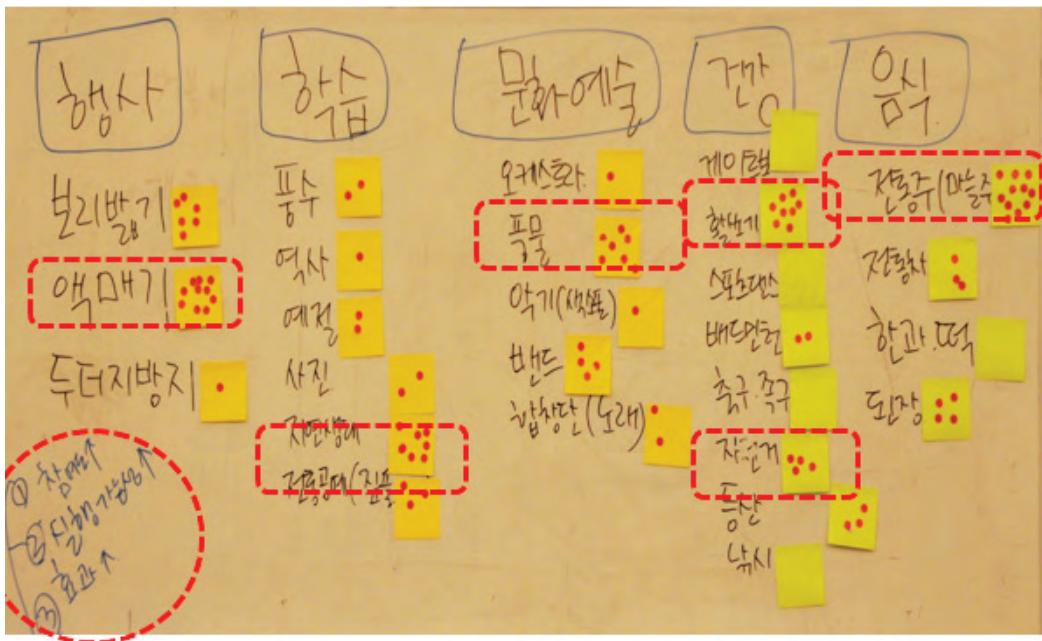
-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가?
-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
- 공동체활동의 방향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

- (2) 공동체 활동 콘텐츠 평가는 주민의 선호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 (3) 평가시에는 기준을 다시 한번 공유하여 도트보팅 방법을 사용해 공동체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때 카테고리가 5개면 1인당 도트스티커를 5개씩 붙일 수 있도록 한다.
- (4) 도트보팅 방법으로 평가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결과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결과 보다는 평가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트보팅 기법 예시

- (1) 다음 사례는 행사, 학습, 문화예술, 건강, 음식으로 공동체활동을 분류하고 각 그룹 (카테고리)마다 마을주민이 평가기준에 맞는 공동체활동을 한가지씩 도트보팅 한 결과이다.
- (2) 마을주민은 행사 카테고리에서는 액대기 활동을, 학습은 자연생태활동을, 문화예술에는 풍물, 건강에는 활쏘기와 자전거, 음식관련 카테고리에서는 전통주 빚기를 선정하였다.



 평가기준

4

실행계획서 작성

- 최종적으로 선정한 공동체 활동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서 작성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행계획서 작성

- (1) 주민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공동체 활동은 반드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실행계획에는 모임의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동체활동의 기획자가 주축이 되어 구체적인 향후 일정, 예산계획, 홍보,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 (3) 가능하면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까지도 정하는 것이 좋다.
- (4)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의 핵심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주민 스스로 부담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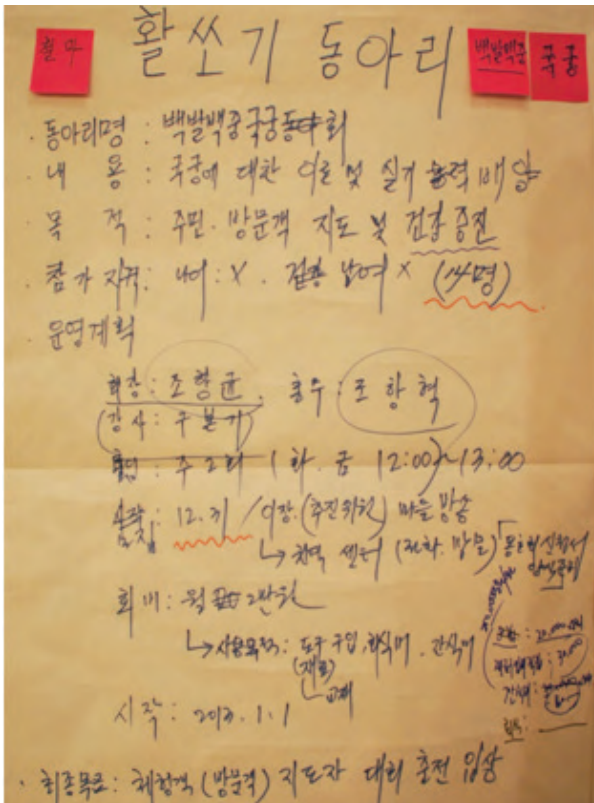
◎ 실행계획서 예시

항 목	내 용	비 고
명 칭	· 000 술동이	
내 용	· 지역 특유의 전통주 연구개발 모임	
참가대상	· 지역 주민 중 희망자 모두	초기 15명 한정
추진계획	· 모임계획 : 교육, 연구(주1회), 술 빚기 실습	커뮤니티 센터
	· 강사섭외 : 마을의 술 빚는 장인들 활용	회비:월1만원
	· 홍보 : 시음회 개최, 마을소식지, 마을방송 등	
	· 창립총회 : 2013년 1월 3일 저녁 7시	시음회 개최
최종목표	· 마을의 연구회에서 시작해서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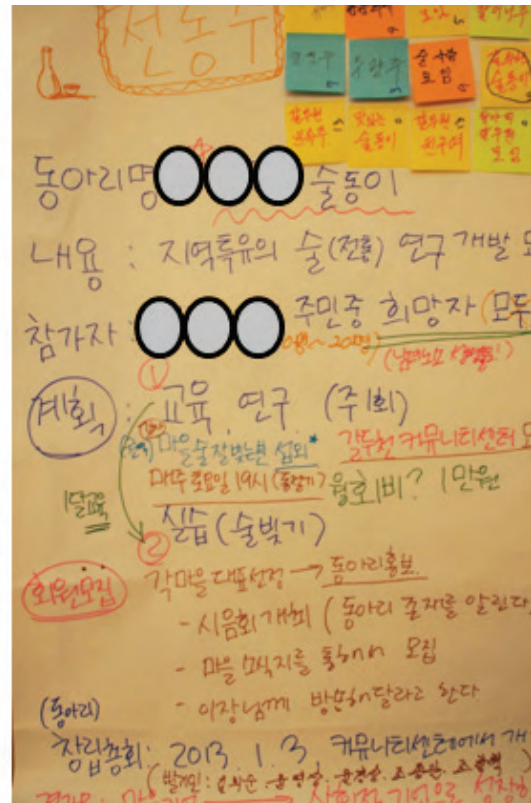
○ 우리 마을(권역)만의 공동체 활동 실행계획서를 만들어 봅시다.

항 목	내 용	비고
명 칭		
내 용		
목 적		
참가대상		
추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총회 준비하는 사람(역할) - 홍보 - 회원모집 - 회비 - 추진방법(자세히) 	
최종목표		

○ 실행계획서는 반드시 발표를 통해 공유합니다.



활쏘기 동호회 : 백발백중 국궁회



지역전통주 연구모임 : 000 술동이



과제별 실행계획서는 전체주민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생활만족형 현장포럼 후속관리

- 주민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 활동을 발굴해내고 실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실행은 실행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진행하는데, 마을(권역)의 사정에 따라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1) 실행주체

우선 실행계획서를 작성했던 주민이 후속활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활동을 처음 계획했던 주민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 회원모집 & 홍보

총회를 통해 공동체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 계획에서 논의했던 홍보방법(마을소식지, 마을 홍보방송, 주민회의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다.

3) 창립총회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할 주민과 함께 총회를 개최한다.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이나 공동체 활동의 기본방향, 회칙 등 구체적인 활동을 논의한다.

4) 전문가 섭외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지역역량강화 사업비와 연계해서 섭외가 가능하다.



노마인사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최종보고회 · 농촌마을종합개발 1단계 사업
· 가시리문화동아리 공연 · 가시리웃놀이 최강전

2012. 12. 21(금) 13:00~21:00

가시리문화센터

충북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생활만족형 공동체 활동 사례

1. 마을환경 개선
2. 건강/복지 증진
3. 공동체생활
4. 마을축제
5. 취미/여가생활
6. 실패사례

1. 마을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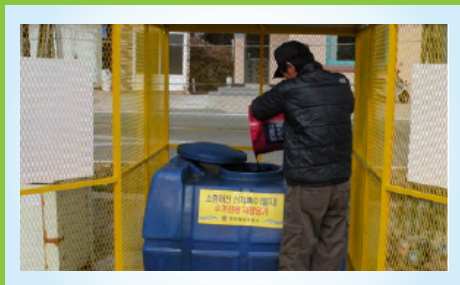
1-1. 강원 영월군 모운동마을

동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우리 마을로 오세요~!!




1-2. 충남 금산군 심천마을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물길 살리고 정도 쌓고!



1-3. 경북 영덕군 대진2리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바다 지킴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입니다.”

최근 농어촌 마을 가꾸기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마을 진입로를 청소하고,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벽화를 그리고 마을에 꽃을 심는 등 마을 단장이 한창입니다.

마을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활동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동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우리 마을로 오세요~!!



"적막하던 산골 마을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절, 석탄 탄광이 있는 곳은 웬만한 도시보다 살기가 더 낫다던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석탄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광산은 하나 둘 문을 닫았고, 주민도 일거리를 찾아 마을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오지에 고립된 마을이 되고 말았는데요. 모운동마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적막하던 산골 마을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그림!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마을 이장님 댁 사모님을 중심으로 마을 담벼락마다 벽화를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 벽화는 처음이라 재미와 배짱이, 이슬 요정, 미운 오리새끼 등 그리기 쉬운 동화 속 주인공부터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 첩첩산중 오지 탄광 마을이 아기자기한 동화 마을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모두의 마음과 정성 덕분이었는데요.”

1. 모운동주민이 직접그린 벽화
2. 연꽃속에서 춤추는 엄지공주
3. 신나는 피아노에 맞춰 춤추는 공연장
4.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는 개미와 배짱이
5. 천사그림 벽화

적막하기만 하던 폐광촌에는 어느새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제 모운동은 동화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카메라를 들고 알음알음 찾아온 손님들로 점차 북적이고 있습니다.

첩첩산중 오지 탄광 마을이 아기자기한 동화 마을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모두의 마음과 정성 덕분이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그대로 묻어나는 모운동 벽화를 배경으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2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물길 살리고 정도 쌓고!



"진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오랜 자랑인 금산군 심천마을 주민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마을 물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던 도랑의 옛 모습을 찾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이면 동네 도랑가로 뛰어나가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던 추억,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도랑엔 각종 쓰레기가 튀구는 모습이 더 익숙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도랑을 그냥 버려 둘 순 없는 일!

진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오랜 자랑인 금산군 심천마을 주민이 직접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 마을 물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던 도랑의 옛 모습을 찾아 주기로 한 것입니다.





1. 삼을들고 나무 심기에 바쁜 심천마을 주민
2. 도랑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3. 마을청소 후 함박웃음 짓는 마을 주민

도랑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말끔히 줍고 물이 고여 나뭇잎이며 이끼가 썩어가던 바닥도 걷어 냈습니다. 물길 옆으로는 영산홍이며 단풍나무도 심어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주변 공간이 정비되고 물길이 살아나면서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무심코 아무 곳이나 버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치되던 도랑 살리기에 주민 모두가 나선 결과 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화합이 이루어 낸 작은 기적은 이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 우리 마을 주민 모두는 '바다 지킴이'

영덕군
대진2리

“한 바탕 마을 대청소를 끝내고 나면, 마을은 물론 바다까지도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영덕 대진2리 어촌계의 해양 오염 예방 활동 덕분입니다.”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들도 이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소형 어선의 선저폐수 회수 작업부터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며 되가지고 온 쓰레기들까지, 예전에는 무심코 바다에 버렸던 것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이렇게 한 바탕 마을 대청소를 끝내고 나면, 마을은 물론 바다까지도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 더 이상 바다의 오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마을 주민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바다 지킴이로 나서서 자체 정화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

토양이나 강에 비해 오염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다, 그러나 바다 역시 말없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와 폐수 등이 바다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더 이상 바다의 오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마을 주민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바다 지킴이로 나서서 자체 정화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풍요로운 바다의 혜택을 오래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를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당연한 깨달음, 이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2012년 깨끗한 어촌 우수마을 현판식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대진2리 주민
2. 어촌에서도 쓰레기는 분리수거 중
3. 선저폐수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마을
4. 해양경찰청장상 수상 축하 현수막



2. 건강·복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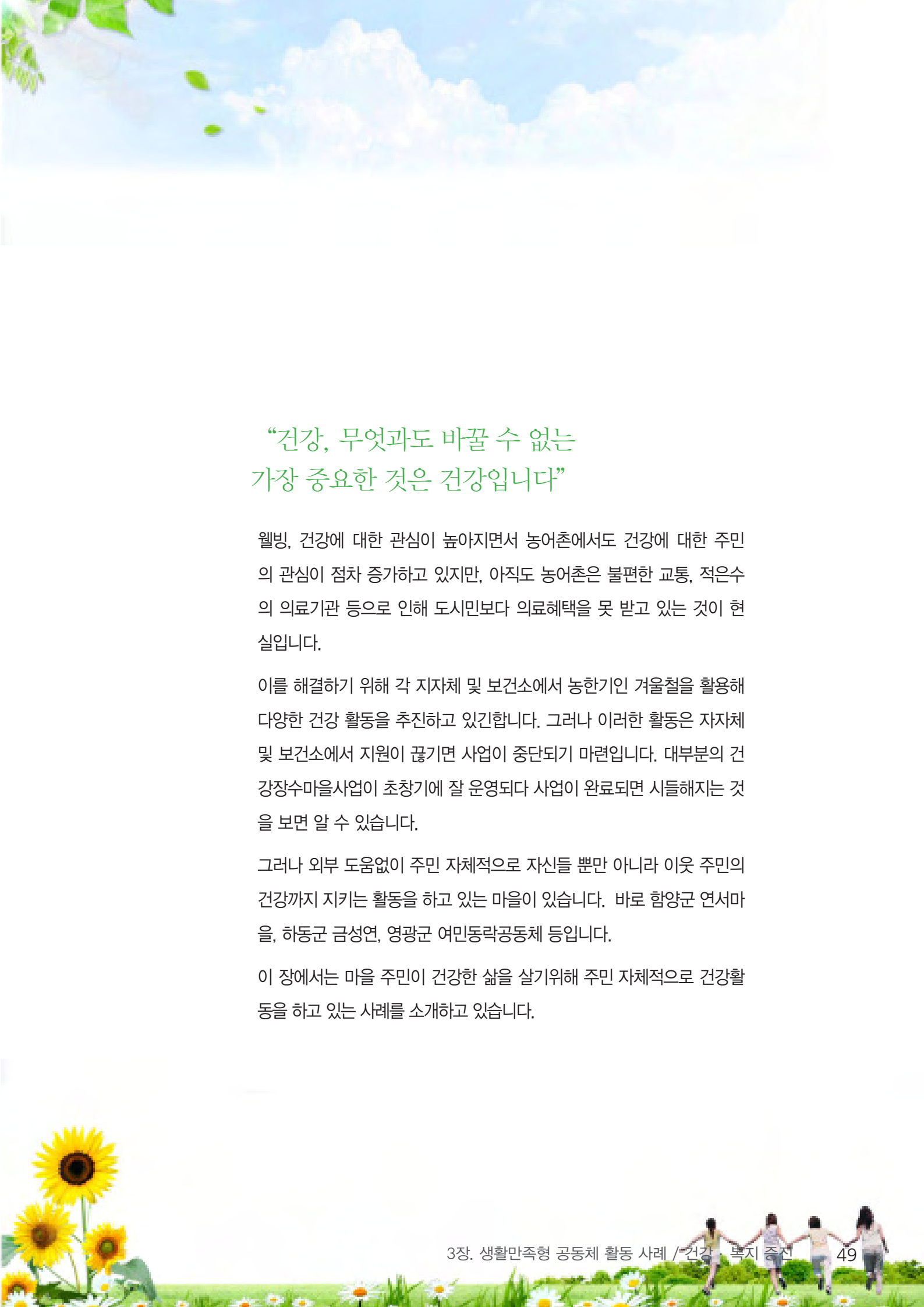
2-1. 경남 함양군 연서마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 마을,
진짜 장수 마을



2-2. 경남 하동군 금성면
우리 마을에 오면 '몸과 마음이 건강'



2-3.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함께 건강해서 더 행복한 우리 마을



“건강,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어촌에서도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어촌은 불편한 교통, 적은수의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도시민보다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농한기인 겨울철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 활동을 추진하고 있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중단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장수마을사업이 초창기에 잘 운영되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들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도움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의 건강까지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함양군 연서마을, 하동군 금성연,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등입니다.

이 장에서는 마을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건강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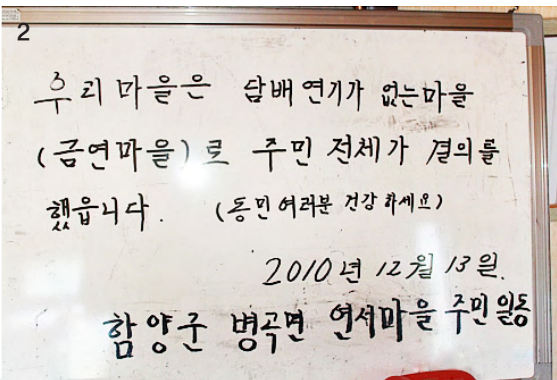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 마을, 진짜 장수 마을

함양군
연서마을

“무엇보다 금연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을 주민 간의 정도 돈독해졌다는 변화 덕분에 연서마을은 함양군 제1호 청정 마을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우신 박수용 할아버지. 뭔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주머니에 든 담배로 손이 갔을 테지만, 그야말로 ‘예전’ 습관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금연을 실천하게 된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담배 추방 운동’ 덕분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소담하게 자리 잡은 함양군 병곡면 연서마을이 담배 없는 청정 마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라상옥(56세) 이장의 노력도 한 몫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꺼내 물자 여기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라상옥 이장이 담배를 피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금연 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부러뜨리며 금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짐하긴 했어도 수십 년을 함께 한 담배를 단번에 버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보일러 당번을 서는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데다 무엇보다 금연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을 주민 간의 정도 돈독해졌다는 변화 덕분에 연서마을은 함양군 제1호 청정 마을이 되었습니다.

금연에 멋지게 성공한 이 여세를 몰아 술 없는 마을까지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백해무익하다는 담배, 과하면 독이 된다는 술 없는 청정 구역 연서 마을이 세계 장수 마을로 이름을 떨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1. 담배연기 없는 마을회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
2. 연서마을 금연 결의문
3. 금연마을 제1호를 만든 연서마을 이장님



2-2 우리 마을에 오면 '몸과 마음이 건강'

하동군
금성면



“마을 주민이 함께 운동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곳, 하동군 금성면입니다.”



1

매일 아침이면 금성면 마을 주민은 하나 둘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지개를 켜고 몸을 푸는 것도 잠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에 따라 단체로 동작을 맞춰 갑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곳, 하동군 금성면입니다.



2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금성면 주민은 2010년부터 건강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원과 마을지킴이가 주민의 건강 되찾기에 앞장서고 있지요.



3

건강 걷기 대회, 걷기 코스 개발, 인근 도시 지역 병원과의 진료 및 검진 협력체계 구축, 저소득층 건강 돌보기, 전 주민의 건강검진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건강위원회는 현재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 주민은 자연스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 주민은 자연스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직접 병원에 동행해 병원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마을 방송을 통해 모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 증진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성면이 하동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마을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1. 혈압측정기를 기증받은 금성면 건강위원회
2. 금성면 건강 토론회
3. 금성면 건강걷기 행사 커팅식
4. 혈압을 측정중인 금성면 주민
5. 하천길 걷기코스



5

2-3 함께 건강해서 더 행복한 우리 마을



“인구가 2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인 영광군 묘량면은 ‘여민동락공동체’를 결성해 운영하면서 노인 복지 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시에 살아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는데, 시골에서는 의료 혜택을 마음대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을 날려 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여민동락공동체 입니다.

인구가 2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인 영광군 묘량면은 여민동락공동체를 결성해 운영하면서 노인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중풍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20여 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비롯해 마을 주민이 직접 노인들을 돌보는 경로당의 품앗이 학교운영, 물리치료와 이·미용 서비스, 영화감상 등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간 보호가 가능한 마을 단위의 노인복지시설인 셈입니다.

홀로 외로이 지내던 노인들은 이제 품앗이 학교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중풍·치매 환자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게 됨과 동시에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마을 주민, 여민동락공동체를 통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 밝게 웃으시는 품앗이 학교 할머니들
2. 오늘은 할머니 생신날
3. 즐거운 음악 수업시간
4.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할머니들



4

3. 공동체생활



3-1. 경기 화성시 산안마을
돈이 필요 없는 마을, '무소유'의 행복



3-2. 경남 산청군 민들레공동체
친환경 공동체의 미래, 우리 마을에서



3-3. 경남 거제시 다대어촌자율공동체
주민 모두의 힘으로 최고의 어촌체험마을



“경쟁이 없는 나누는 삶, 이들이 지역공동체성을 실현합니다”

한국의 생태공동체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이후라고 했지만 현재 온전히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공동체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맨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에서 지속적인 생존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태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길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생태마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의도적으로 계획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마을을 생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든 계획공동체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이 장에서는 공동체생활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1 돈이 필요 없는 마을, '무소유' 의 행복

화성시
산안마을

“ 법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돈 없이도 사는 마을이 바로 ‘산안마을’ 입니다. ”

갑자기 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사회 전체에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곳, 화성시 공동체 산안마을만 빼면 말입니다.

법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돈 없이도 사는 마을이 바로 산안마을입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마을에는 6가구가 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와 달리 산안마을은 한 공간에서 6가구가 함께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집 벽을 허물고 빈부차이 없이 수익이 나면 같이 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돌보는 진정한 가족인 것이지요, 이들은 서로 대립하거나 싸우지 않고 늘 즐겁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모든 것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1. 설날을 같이 보내는 산안마을 가족들
2. 감장담그기에 힘을 보탠 산안마을 아이들
3. 여름 가족정기모임 만찬
4. 공동농장 감자캐기

이들에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음식과 빨래 등을 담당하는 생활부, 농사 담당인 채소부, 닭을 키우는 양계부, 마을의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공급부, 아이들을 돌보는 학육부 등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을 밖에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로 관리되는 마을 돈 지급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쓰면 됩니다. 부엌도, 옷장도 하나 뿐이지만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역시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을 어른 모두가 부모이자 조부모인 셈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은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며 나만의 행복, 내 가족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생활, ‘산안마을’ 을 통해 배워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3-2 친환경 공동체의 미래, 우리 마을에서



“지난 1991년 생태공동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청군 갈전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5가구가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들레 학교 학생, 교사 등 100여 명이 농사와 교육,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 물질은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작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친환경적인 삶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친환경으로 이뤄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을, 산청 민들레마을입니다.



지난 1991년 생태공동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청군 갈전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5가구가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들레 학교 학생, 교사 등 100여명이 농사와 교육,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공동체는 자립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자립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나누고 자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너지 대안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민들레공동체는 이곳에 대안학교, 민들레공방, 대안기술센터 등을 만들어 농촌마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마을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의 삶, 조금은 부족한듯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인 민들레공동체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민들레공동체 공동주택
2. 대체에너지를 체험하는 아이들
3. 함께해서 즐거운 민들레공동체 가족들
4.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열조리기
5. 자전거 에너지 발생원리를 배우는 아이들
6. 대체에너지 원리에 대해 설명 중인 이동근 소장



3-3

주민 모두의 힘으로 최고의 어촌 체험마을



“다대마을 주민. 모두가 체험마을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도 한층 커지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다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을 주민의 고령화와 비교적 좁은 해협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거제 다대마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어촌 체험마을로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고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마을을 발전시키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체험마을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몇 마을 주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자율공동체가 가져다 준 마을의 행복한 변화,
이제는 눈에 띄는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330명 중 고령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자율 공동체에 참여해 체험마을 운영에 나선 결과 다대마을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체험마을 명단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녀회는 식당 운영과 청소를, 노인회는 환경 정화 활동과 주차 관리를, 청년회는 체험 진행과 해설을 담당하며 손발이 척척 맞는 찰떡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다대마을 주민. 모두가 체험마을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도 한층 커지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율공동체가 가져다 준 마을의 행복한 변화, 이제는 눈에 띄는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거제다도어촌체험마을 전경
2. 거제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중인 사람들
3. 다대어촌자율관리공동체 총회
4. 부녀회, 바다는 우리손으로 깨끗하게 치우죠



4. 마을축제



4-1. 경기 화성시 산안마을
풀어놓은 풍성한 세상! 산안마을 초록축제



4-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푸근한 사람 냄새가 있는 우리 마을 전통



4-3. 충북 괴산군 고성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부부싸움하는 날은 마을잔치하는 날




4-4. 경남 거창군 개삼마을
우리 마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4-5. 전남 진안군 배넘실마을
여행을 통해 새로운 희망 열어



4-6. 전남 진도군 백구마을
26년의 전통 자생 마을잔치,
'백구마을 논배미 축제'



“진정한 축제는 주민이 만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연간 1,2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확산시키는 지역축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축제는 드물지요.

한 개의 축제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쓰는 와중에도 정작 축제의 주인이 돼야 할 주민은 축제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축제를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축제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 축제가 잘 만들어 질 리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 주도형 축제와 대형 지역축제의 홍수 속에서 최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축제의 홍수 속에서도 주민의 작은 손으로 마을축제를 직접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의 잔치는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축제, 잔치, 행사 등의 활동이 외부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1 풀어놓은 풍성한 세상! 산안마을 초록축제



“나에게 쓸모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축제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물건은 내어놓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는 날, 바로 산안마을에 열리는 초록축제입니다.”

지난 1986년 거저의 축제로 시작되어 2001년 새롭게 거듭난 초록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축제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초록축제는 즐겁고 풍성하기만 합니다. 지역의 개인과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조금씩 가진것을 풀어놓음으로서 풍성해 지는 것입니다. 초록축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충당하며 자율적으로 헌신하여 지원 없이도 풍성한 나눔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2001년부터 화성 지역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풀어놓아 함께 쓰다 보면 한 몸처럼 사이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초록축제를 통해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1. 산안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정란
2. 친환경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 체험
3. 더불어 함께 행복한 초록축제 만들기 안내 현수막
4. 축제날은 붐어빵도 거저
5. 아이들과 함께하는 김밥만들기 체험

시민들의 적극적인 발원으로 지역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축제의 성립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에는 못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교통정리 하시는 분, 물건 대신으로 자원봉사로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 뒷풀이 까지 뭐 하나 댓가를 요구하는 것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이면에 영리추구나 단체 홍보, 주인, 손님, 주관하는 장 등이 일체 없어 자유로운 공기로 충만합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초록축제.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미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4-2 푸근한 사람 냄새가 있는 우리 마을 전통



“수고스러운 초여름을 보낸 덕실마을 일꾼들에겐 즐거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 전통 행사인 ‘질먹기 놀이 축제’ 입니다.”

벼들이 제법 푸른 잎을 키워 올릴 때면 논마다 김매기를 하는 농부들의 일손도 바빠집니다. 김매기를 끝내고 말끔해진 논을 바라보면 그동안 흘린 구슬땀도 아깝지 않은데요.

수고스러운 초여름을 보낸 덕실리마을 일꾼들에겐 즐거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 전통 행사인 ‘질먹기 놀이 축제’ 입니다.





1. 흥겨운 축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부녀회
2. 덕실리 최장수 어르신을 태운 가마
3. 한상 가득 차려진 풍년기원제 상
4. 풍물에 맞춰 흥겨운 시간
5. 맘껏먹고 맘껏 즐겨보자



질먹기 놀이 축제는 매년 7월 즈음 마을 품앗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일꾼들에게 품삯도 지불하고 푸짐한 잔칫상을 마련해 대접하며 이들을 마을의 새로운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죠.

흥겨운 농악까지 곁들여져 흥을 돋우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질먹기 놀이 축제는 덕실리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대표적인 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전통 문화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돈독히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이웃의 끈끈한 정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덕실리마을의 푸짐한 ‘질먹기 놀이 축제’ 함께 해 보지 않으실래요?

4-3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부부싸움하는 날은 마을잔치하는 날



“이번에도 싸운 부부가 없나? 이러다 계 깨지겠네!
이젠 제발 좀 싸웁시다!”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가던 중 웃음보가 터지는데요.”

마을회관에 모인 일곱 쌍의 부부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싸운 부부가 없나? 이러다 계 깨지겠네! 이젠 제발 좀 싸웁시다!”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가던 중 웃음보가 터지는데요.

이들은 ‘부부싸움계’의 회원들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특이한 계칙 때문에 웃지 못 할 대화가 오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가볍게 말다툼하면 5만 원,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싸우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부부싸움계’ 고된 농사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마을 인심까지 나빠지는 것을 보며 고안해 낸 비책이었습니다.

부부싸움계를 결성하기는 했지만 남의 가정사에 시시콜콜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진납세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이 무서워 싸울 일도 참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싸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대신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 싸움 후에는 벌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큰 싸움 후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 계원이 모여 회의도 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찾고 잘못을 가린 뒤 부부의 서먹해진 분위기를 풀어 주는 화해의 자리까지 마련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10여 년 만에 모인 벌금은 천만 원이 넘었고 이 돈은 경로잔치 등 각종 마을 행사에 쓰였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부부싸움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벌금이 모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벌금이 무서워 싸울 일도 참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싸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대신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부부싸움계가 이제는 마을 주민을 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4-4 우리 마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고된 일로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하루를 꼬박
여왕처럼 대접하는 날이 바로 '여왕의 날' 입니다."

결혼하기 전, '평생 여왕으로 모시겠다' 는 말을 들어 보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1년에 한 번은 꼭 지키고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1년에 하루지만 벌써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창 개삼마을의 특별한 하루, '여왕의 날' 입니다.

오직 사람 힘으로만 농사를 지어야 했던 시절, 한 달 넘게 모를 심고 집안일까지 돌봐야 했던 마을 아낙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왕의 날은 고된 일로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하루를 꼬박 여왕처럼 대접하는 날입니다.





1. 개삼마을 주민 단체 사진
2. 개삼마을 이장님 부부
3. 활짝웃고있는 개삼마을 여왕님들
4. 여왕님을 모시는 개삼마을 어르신들

여왕의 날에 여자들은 말 그대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잔치인데 모든 것을 남자들이 준비하는 잔치인 셈입니다.

비록 어설피긴 하지만 손수 상을 차려 내고 잔심부름을 해 주던 30~40대의 남편은 이제 팔손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만큼은 온전히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 했던 아내들의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만큼은 여전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세월과 함께 사랑도 더욱 커져 왔을 것입니다.

개삼마을의 여왕님들을 위한 여왕의 날, 마을 주민 모두의 즐거운 축제이자 전통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4-5 여행을 통해 새로운 희망 열어

진안군
배넘실마을

“무겁고 어두웠던 마을 분위기를 밝고 희망적으로 바꿔 놓은 것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완공된 용강댐 때문에 삶이 뒤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몰로 삶의 터전 모두를 잃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수몰 예정지가 아니었음에도 비옥했던 농토만 수몰되어 버려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이주해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마을 분위기도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여행을 통해 색다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은 조금씩 마을의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마을 분위기를 밝고 희망적으로 바꿔 놓은 것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위축된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되돌려 놓기 위해 지난 2007년 마을 주민 전체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인데요.

그리고 5년 후인 2013년 1월에 주민 36명이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여행을 통해 색다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은 조금씩 마을의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더 젊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2012년 겨울 중국 여행 단체 사진
2. 중국에서 찍는 기념사진
3. 작은 돛단배를 타고 이동
4. 중국에서의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는 배냇실마을 주민들

26년의 전통 자생 마을잔치, ‘백구마을 논배미 축제’

진도군
백구마을



“논배미축제는 말 그대로 논에서 하는 신명나는 놀이로 추수가 끝난 논에서 마을 주민 및 마을을 떠나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어울려 하루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백구가 먼 길을 걸어 다시 돌아왔다는 놀랍고도 훈훈한 이야기로 유명한 진도 백구마을.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백구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추수를 끝낸 논바닥에서 한바탕 흥겨운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요. 마을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논배미 축제’ 입니다.

논배미축제는 말 그대로 논에서 하는 신명나는 놀이로 추수가 끝난 논에서 마을 주민 및 마을을 떠나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어울려 하루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축제에 모인 사람은 5백 여명. 돈지리 주민에다 서울·광주에 나가 사는 사람 50여명이 가세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벼 농사 끝내고 더 추워지기 전에 낱을 받아 한바탕 재미지게 노는 거지, 이기고 지고가 뭐 대수인가.” 라고 하십니다.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한 팀을 이룬 제기차기 대회와 어린이들의 새끼 꼬기 시합도 있는데요. 상품 또한 검정쌀을 주는 등 시골 잔치답습니다. 점심 식사 후 북놀이와 의신들노래 등으로 흥을 돋을 때는 술에 얼큰해진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논배미축제는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치루는 자생적인 축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즐거운날, 우리 마을에도 이런 잔치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1. 논에서 즐기는 점심만찬
2. 호박이고 신나게 달리는 배넘실마예 어머님들
3. 논에서 즐기는 돼지불통차기
4. 오라차차, 바위돌기 경기
5. 아이들과 함께하는 굴렁쇠 굴리기



5. 취미 · 여가



5-1. 경기 양주시 먹골마을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

5-2. 강원 평창군 대상리
예술로 하나 된 우리 마을 '모두가 작가'

5-3. 경북 봉화군 청량산비나리마을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주인은 '마을 주민'



5-4. 경남 함안군 봉덕마을
우리 지역은 '밝은 미래에 투자합니다'

5-5. 전북 완주군 비비정마을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마을,
'건달 시스터즈' 를 아십니까?



5-6. 전남 곡성군 도깨비마을
곡성의 무한도전! 도깨비마을 주민극단

5-7.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권역
주민 동아리의 집성체 '제주 가시리 마을'



“새로운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농어촌의 농한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을회관에 모여 수다를 떨거나 고스톱을 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막상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것이 없고, 읍내까지 나가자니 교통이 불편해 마을회관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농촌주민에게 문화를 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특별한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한 시간에 배움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1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마을 주민 간의 화합으로 이어 가고 싶다는 먹골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차근차근 현실로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당장 내 옆,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은 자원봉사자 인 동시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활이 곧 봉사인 이곳, 양주 먹골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부터 쌀·생필품 지급, 파손가옥 보수 등의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새마을지회에서 봉사활동 기금을 지원받는 것과 함께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들, 그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 모두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 덕에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 의지도 강해지고, 참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마을 주민은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 개선 사업, 휴경지 작물 수확 판매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나눔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마을 주민 간의 화합으로 이어 가고 싶다는 먹골마을 주민의 소박한 꿈은 차근차근 현실로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1.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먹골마을
2. 김장담글 배추를 수확하는 먹골마을 부녀회
3. 자전거 도로 청소봉사활동
4. 독거노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



5-2 예술로 하나 된 우리 마을 '모두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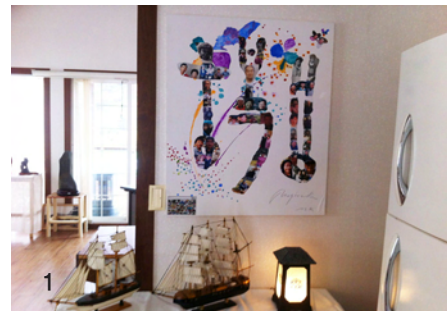


“어색한 눈인사만 나누던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생겨난 것은 ‘예술’ 덕분이었습니다.”

평창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된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로 모여 들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과 귀농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 사이는 서먹하기만 했습니다. 어색한 눈인사만 나누던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생겨난 것은 예술 덕분이었습니다.

귀농인 출신 이강선 이장이 마을 원주민들과 좀 더 돈독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으로 밴드 동아리와 난타 팀을 결성했고, 이렇게 시작한 예술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 마을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한평 미술관입니다.

주민이 직접 그린 동양화, 서양화, 수채화, 퀼트, 수석, 조각, 시화 등 다양한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한평 미술관은 마을 정자와 경로당 2층 방을 전시 공간으로 꾸민 소박한 공간입니다.





“ 귀농인과 마을 원주민의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던 ‘한평미술관’ 은 이제 화합과 정의 상징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1. 마을회관에 전시된 배모형 작품
2. 대상리 주민이 만든 목공예품
3. 수석도 한 편의 작품
4. 마을 정자를 활용한 대상리 한평미술관

마을 주민의 정성과 끈끈한 정, 그리고 대상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은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로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귀농인과 마을 원주민의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던 한평 미술관은 이제 화합과 정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5-3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주인은 '마을 주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특별한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갯벌 체험, 물고기 잡기 체험, 초가 생활 체험....,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골 생활에 익숙지 않은 도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추억을 남겨줄 법한 것들인데요.

도예체험 같은 프로그램은 마을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도 평소 하기 어려운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에 생각의 전환을 통해 마을의 체험 활동을 주민들의 취미 활동으로 함께 활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비나리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을 위한 취미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마을 주민이 취미 활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참가비를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험객들만 해 오던 도예체험이 마을 주민을 위한 취미 도예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도농교류만큼 중요한 것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비나리마을. 문화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던 주민은 도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1. 도예를 배우는 비나리마을 주민
2.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풍물반 수업
3. 비나리마을 주민 도예반 수업

도예반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의 호응이 높은데다 다른 취미 활동도 해 보고 싶다는 요청도 있어 댄스스포츠나 악기 연주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특별한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4 우리 지역은 '밝은 미래에 투자합니다'



“이 돈은 이장님과 마을 주민의 투자금인데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크게 돌려받게 될,
‘함안군장학재단’에 기부할 귀한 장학금입니다.”

오늘따라 이장님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은행에서 1백만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 돈은 이장님과 마을 주민의 투자금인데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크게 돌려받게 될 함안군장학재단에 기부할 귀한 장학금입니다.

마을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군으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은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장학금을 전달하고 환하게 웃는

봉덕마을 주민

2. 함안군 장학재단에 기부중인 이장님

"마을 주민은 기부를 통해 나눔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지역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모으고 있는 마을 기금은 매월 차곡차곡 쌓여 함안의 미래를 밝힐 종잣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기부를 통해 나눔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지역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기부하고 있는 장학금은 함안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봉덕마을 주민의 마음이 살려 낸 희망의 불씨가 함안군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재목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5-5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마을, ‘건달 시스터즈’ 를 아십니까?

완주군
비비정마을

“건달 시스터즈, 코미디 영화 제목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이름은 다름아닌 마을 밴드 이름입니다.”

농촌에서 일손을 잠시 놓고 쉴 수 있는 농한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휴식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농촌 사람들에게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때이기도 합니다.

막상 일손을 놓고 나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활동을 통해 농한기를 더 바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건달 시스터즈, 코미디 영화 제목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이름은 다름아닌 마을 밴드 이름입니다.

전북 완주군 비비정마을 주민이 결성한 이 밴드는 농가 레스토랑과 카페, 야외 공연장에서 연주 활동을 펼칠 만큼 수준급의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푹푹 뭉치게 된 마을 주민에게
‘건달 시스터즈’ 는 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에서 무슨 밴드를 결성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하나씩 선택하고 숨겨둔 음악 실력을 뽐내기 시작하면서 밴드 활동에도 점점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농한기를 중심으로 톱툰이 연주 연습을 하고, 다른 주민 역시 이들의 음악을 함께 즐기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악으로 푹푹 뭉치게 된 마을 주민에게 건달 시스터즈는 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완주 8경 중 하나인 비비낙안을 바라보며 듣는 건달 시스터즈의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1. 손주와 함께 기타 연주 중인 어르신
2. 손주에게 들려주는 기타실력
3. 건달시스터즈 드러머
4. 아코디언 연습 삼매경
5. 노래 연습중인 비비정마을 가수들
6. 건달시스터즈 기타리스트



5-6 곡성의 무한도전! 도깨비마을 주민극단



“도깨비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적 기반이 척박한 곡성에서 주민들로만 구성된 인형극
극단이 10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섬진강 도깨비마을 인형극단입니다.”

섬진강 도깨비마을 인형극단은 섬진강 마천목장군의 도깨비살 설화를 바탕으로 2002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김성범 도깨비마을 촌장이 인형극을 창작 하고 마을 주민 몇 명이 단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촌장과 단원 가운데 연극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들은 1주일에 한두 차례 모여 인형극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도깨비살 설화를 공연하는 마을 극단은 전문가의 도움 전혀 없이 인형극 창작, 배경음악 설정, 인형제작 등의 모든 공연 준비를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일궈 냈습니다.



“인형극이나 연극을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주는 주민을 위해 계속해서 공연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들은 이제 진정한 연극배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년을 함께해온 주부 8명의 극단원과 함께 도깨비 인형극뿐만 아니라 치매, 가정, 사랑 등 노인들의 아픔을 담은 연극과 인형극 공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겸해 공연을 펼쳐왔지만 이제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이 마을 극단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10년 이상 극단이 운영된 곳은 섬진강 도깨비마을 인형극단이 유일하다며, 제대로 된 공연공간도 없지만 인형극이나 연극을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주는 주민을 위해 계속해서 공연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들은 이제 진정한 연극배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도깨비 인형극 공연중인 극단
2. 유치원에서 공연중인 도깨비마을 극단
3. 섬진강 가차길 공연
4. 도깨비 극단이 직접만든 인형



5-7 주민 동아리의 집성체 '제주 가시리 마을'



"문화생활,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마을 주민에게 문화를 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주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중산간의 작은 마을인 가시리 마을. 마을 주민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시골 마을입니다.

문화생활,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마을 주민에게 문화를 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주민을 위해 저녁 시간마다 열린 문화학교에서는 국궁, 댄스스포츠, 밴드, 타악, 약초 등 다양한 내용의 강좌가 열렸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운 주민은 점차 가시리 마을을 문화 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실력만큼 탄탄해진 마을 주민 간의 화합 역시 가시리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단조롭기까지 한 이들의 삶에 문화라는 새로운 일상이 더해지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타악 동아리 두드림과 마을 밴드 반딧불이를 비롯해 기공, 댄스스포츠, 사진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취미 활동을 이어 가는 마을 주민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할 만큼의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실력만큼 탄탄해진 마을 주민 간의 화합 역시 가시리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단조롭기까지 한 이들의 삶에 ‘문화’ 라는 새로운 일상이 더해지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리 마을에서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의지도 있었지만 외부기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가시리 마을은 주민스스로 자립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의 의지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1. 가시리 밴드 반딧불이
2. 댄스스포츠 연습
3. 타악 동아리 두드림
4. 댄스스포츠 공연

6. 실패사례

"우리는 실패 사례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6-1. 마을사업, 일단 건물부터 짓고 봐야지!

마을사업, 일단 건물부터 짓고 봐야

6-2. 경제적 이익만 쫓다보니 결국....

경제적 이익만 쫓다보니 결국....

6-3. 주민이 행복해야 마을이 발전

주민이 행복해야 마을이 발전

6-1 마을사업, 일단 건물부터 짓고 봐야지!

건물부터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을에서 권역사업으로 장류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나눠가지는 권역사업이다 보니 세 개 마을에서 사업을 나눠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을은 사업비를 받아 장류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지요.

무슨 사업을 하던 일단 건물은 짓고 봐야지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멋들어지게 조성된 2층 규모의 장류체험관. 1층에는 된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시설이, 2층에는 도시민을 위한 장류체험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에는 장독 30여개가 준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항아리는 비어있고, 1층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 장류사업을 운영할 부녀회가 이미 해체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업은 멈췄고 이제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외부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많은 보수비를 들여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고 마을에서도 부지 마련 등을 위해 투자를 했지만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시설만 잘 지어 놓으면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마을이 될 줄 알았는데.....



6-2 경제적 이익만 쫓다보니 결국....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이 마을은 사업초기 마을공동사업으로 인해 마을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요. ‘우리 마을도 부자 마을이 되겠구나. 나도 이것만 잘되면 돈 걱정 없이 잘살게 되겠지’ 생각보다 사업이 잘 굴러갔습니다. 제법 돈도 벌리기 시작했구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될수록 마을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운영위원회를 믿지 못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분배방식에도 문제를 삼았지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가져갑니까? 팔린게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 벌었다니요?’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마을사업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간에도 왕래가 사라지고 마을은 웃음이 사라졌지요. 잘먹고 잘살자고 시작한 일인데....



6-3 주민이 행복해야 마을이 발전

주민이 행복해야 마을도 발전합니다.

경제적 이득만 추구하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도 공동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편 가르기를 시작했고 서로 추진하는 일에는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주민들은 예전이 그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지? 잘먹고 잘살자고 한 일인데....’ 처음에는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소득과 관계된 일을 제외하고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 마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요. 우리 마을이 돈 잘 버는 마을 말고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라는 말에 등을 돌리고 앉았던 주민들이 주뻗주뻗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서로 서먹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돈 버는 일이 아닌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다보니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합니다. 아직 이 마을이 한 번의 활동으로 모든 주민간 양금을 다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마을 주민간 소통이 시작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마을이 다시 예전의 정 많고 웃음 많던 마을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 스스로 즐거워지는 농어촌 생활만족 이야기

- _ 발 행 / 농림수산식품부
- _ 발 행 일 / 2013. 01
- _ 총 괄 / 김정희, 윤광일
- _ 기 획 / 박종훈, 이훈구, 이진, 정철안, 박종윤, 신종갑, 윤정식
- _ 문 의 처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번지 한국농어촌공사
T. 031-420-3647 성기서
- _ 제 작 / (주)초록넷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본 책은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주민 스스로 즐거워지는 농어촌 생활만족 이야기

- _ 발 행 / 농림수산식품부
- _ 발 행 일 / 2013. 01
- _ 총 괄 / 김정희, 윤광일
- _ 기 획 / 박종훈, 이훈구, 이진, 정철안, 박종윤, 신종갑, 윤정식
- _ 문 의 처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번지 한국농어촌공사
T. 031-420-3647 성기서
- _ 제 작 / (주)초록넷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본 책은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지합니다.